



폴란드

##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여지 많아

최근 폴란드의 일간지, 주간 및 타블로이드판 신문 등 언론매체에서 자국 실업과 이주 문제를 최대의 경제현안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주요 언론기관의 하나인 Relay사는 기업들이 과다한 세금 및 사회분담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족단위의 소규모 경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처럼 누적되어 온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는 폴란드 기업의 경영여건이 부정적인 영업관행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경제계의 우려가 담긴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 거시경제 상황은 양호하나 주변경쟁국과의 실질적인 격차 확대

폴란드는 체코 등 주변 개방경제권을 점차 위협하고 있는데, 폴란드 수출실적이 2003년에는 610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950억 달러로 급성장하고 있는 점도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2%로 체코보다 10~15% 정

도 낮은 수준이며, 실질임금은 1.7%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2.8% 수준에 불과한 275억 Zloty였고, 정부예산안에 기초한 2006년도 재정수지 적자는 306억 Zloty로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의 전망에 따르면, 폴란드의 향후 4년간 수출증가율은 매년 8% 이상을 기록하고 경제 현대화에 소요되는 자본재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된다. 2005년 기준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48억 달러로 GDP의 1.6% 수준이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순 유입액은 연중 75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폴란드 경제는 전반적으로 현대화되는 추세에 있고 도심지에서는 고층건물이 늘고 있으며 인터넷 환경도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 바르샤바 국제공항은 1989년 이전의 공산주의체제 당시 중앙계획당국이 운영하면서 시설측면의 노후화가 문제가 되었지만,

1992년에 새로 건설되면서 그 면모가 일신되었다. 신 공항은 연간 350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2005년에는 700만 명이 이용하였고, 금년 여름에 2억 2,500만 명을 수용하는 터미널이 조성되면 승객 수용능력이 연간 1,000만 명으로 제고될 것이다. 카토비스(Katowice) 공항도 사정이 마찬가지인데, 1995년에는 15,000명에 불과했던 이용 승객수가 지난해에는 100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폴란드는 주변 중동부 유럽국가에 비해 경제성장률은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05년도 기준으로 폴란드의 경제성장률은 3.2%<sup>1)</sup>인데 반해 체코는 6.9%, 리투아니아는 8.8%, 에스토니아는 1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EU 회원국이 아닌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비교적 경제규모가 큰 체제전환국보다는 폴란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폴란드가 이미 EU 회원국으로 편입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들 국가와의 비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sup>2)</sup> 따라서 <그림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폴란드를 제외한 중동부 EU-7개국<sup>3)</sup>과의 비교가 보다 공평한 분석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르면, 폴란드는 1999~2004년 중 1인당 경제성장률, 2004년도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GDP 및 1989~2004년 중 1인당 FDI 유입액 분야에서 이들 7개국 평균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분석된다.

### 실업 및 사회분담금 부담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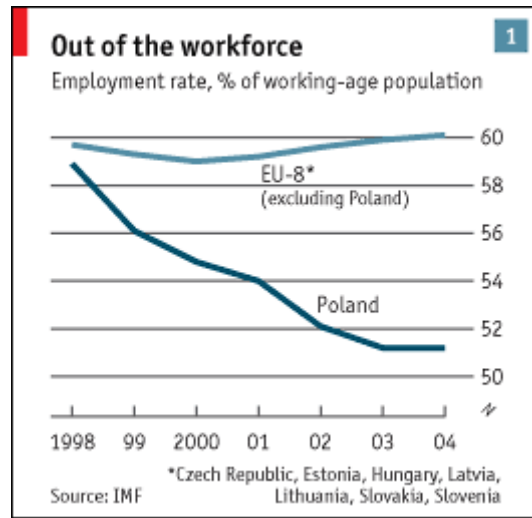
2004년 이후 20만 명의 폴란드인들이 아

<그림 1> 성장, 소득, FDI 비교



자료: Economist, "So much to do", May, 2006.

<그림 2> 연도별 고용비율 추이



자료: Economist, "Cheer up", May, 2006.

1) 2006년 1/4분기에는 5.2%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연중 4.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폴란드는 2005년 말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체제전환 단계별 기준에 의하면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과 더불어 더 이상 체제전환 진행국으로 분류되지 않음.

일랜드에 이주하였고 50만 명 이상이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3,810만 명의 인구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폴란드의 해외근로자는 많은 편에 속한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가장 큰 요인은 청년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가 폴란드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기인한다. 또 다른 이유로는 폴란드 대학교육 수준인데, 평범한 과목학습 분위기로 알려져 있어 역동적이고 개방적이며 글로벌 경쟁 추구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또한, 폴란드 전체 실업률은 18% 수준인데, 청년 실업률이 40%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중형 인구구조(demographic bulge)가 하나의 원인이지만, 세금 및 연금과 사회분담금(social charges) 부담이 노동비용을 상승하게 한 점도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폴란드 노동시장에서 노동가능인구의 절반 정도만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폴란드의 분야별 기업 경영여건 지표 요약

영업개시		투자자 보호	
행정절차	10건	공개범위지수(0-10)	7
소요시간	31일	관리자책임범위지수(0-10)	4
비용(1인당 소득 대비)	22.2%	주주소송가능지수(0-10)	8
최소자본금(1인당 소득 대비)	220.1%	투자자보호강도지수(0-10)	6.3
영업허가		세금납부	
행정절차	25건	납부건수	43건
소요시간	322일	소요시간(연간)	175시간
비용(1인당 소득 대비)	83.1%	총 과세대상(총 이윤대비)	55.6%
고용·해고 근로자		대외무역	
고용난이도지수(0-100)	11	수출서류건수	6건
시간경직지수(0-100)	60	수출확인건수	5건
해고난이도지수(0-100)	40	수출소요시간	19일
고용경직지수(0-100)	37	수입서류건수	7건
고용비용(급여 대비)	26%	수입확인건수	8건
해고비용(급여보상기간)	25주	수입 소요시간	26일
소유권등록		계약실행	
행정절차	6일	행정절차	41건
소요시간	197일	소요시간	980일
비용(소유권 가치 대비)	1.6%	비용(채무 대비)	8.7%
신용취급		영업종료	
법적권리강도지수(0-10)	3	소요시간	1일
신용정보심화지수(0-6)	4	비용(재산권 대비)	22%
공증보장	0.0%	보상비율(달러 대비)	64.0센트
민간보장	38.1%		

자료: World Bank/IFC, "Doing Business in 2006", 2006.

3)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 복잡한 행정절차로 기업 경영여건 열위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관세장벽이 철폐되어 EU 역내에서는 무관세 교역이 가능하게 된 점 등 폴란드 기업의 경영여건은 최근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폴란드 경제문제의 최대 현안으로 과세 등과 관련한 관료주의가 흔히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면, 폴란드의 세율 수준은 주변 체제전환국에 비해 높지 않지만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또한, 체코의 부가가치세 취급기간은 60일 정도이지만 폴란드에서는 수출 후 부가가치세 환급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간한 국가별 기업 경영여건 비교분석 자료에 의하면, 폴란드는 쿠웨이트, 통가, 아르메니아 보다 낮은 54위를 기록하였다.<sup>4)</sup> 이 같은 순위는 주변 중부유럽의 체제전환국 가운데 슬로베니아를 제외하고는 최하위 수준이다.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업 설립비용은 1인당 GDP의 22%에 해당하는데, 이는 체제전환국 평균치인 13%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업 프로젝트별로 평균 25건의 행정절차와 322일의 시일이 소요되어 중부유럽 국가 평균치인 21건의 절차와 252일(미국 70일)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

그러나 폴란드 세무당국을 포함한 경제제도 및 정책 담당자들이 자국의 기업 경영여건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열위상태에 있는 여건을 오히려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현재 폴란드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과도한 실업, 세금 및 사회분담금 부문에 대한 개선노력을 통하여 실질소득 등의 측면에서도 주변경쟁국과 비교하여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조 양 현】

4) 세계은행과 국제금융공사(IFC)가 공동으로 발간한 "Doing Business in 2006"에서 세계 155개 국가를 대상으로 기업 경영여건의 분야별 순위를 측정함.